



1976 전국순회양계 대강습회 개최

지난 8월 23일 충남 홍성에서

76년도 하계양계강습회가 지난 8월 23일 충청남도 홍성지역 축산관계인사 양측가 150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강사로는 유윤수(사료협회회장), 오봉국(서울대 농대교수),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지역과장)이였으며, 이날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윤수회장은 사료수급사정과 축산업의 전망에서 지금 현재의 국내 경제성장과 육류 소비량의 증대, 그리고 배합사료수급관계를 도표도 설명하고 배합사료의 생산량이 75년도에 비하여 50%이상 증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생산자 자신도 가축사육두수를 경기가 좀 좋다고 급격히 올리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가 이룩되도록 양측가들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료곡물가격의 국제시세가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의 한발등으로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봉국교수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책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부업내지 겸업의 형태에서 전업내지 기업화가 되었다고 밝히고 외형적이 발전은 크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계업의 경기가 좀 좋으면 생산자들의 생산과잉으로 경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 고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취약점이라고 밝히고 그 대응책으로는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한 기금마련, 계란이나 계육의 유통구조개선, 메스콤을 통한 적극적인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배합사료 원료의 축산화가 촉진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식지역과장은 "양계에 있어서 소독의 이론과 응용"이라는 강의에서 우리나라 양계경영이 점점 집산화되고 한곳에서 오래 사양함으로써 처음시작할때보다 원인불명의 질병, 발육부진 육성을, 산란율저하등의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양측가들은 비용면에서나 효과적인 면에서나 보다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 말하고 소독에 대한 이론과 병원미생물의 저항력, 소독약의 특성과 오염물의 성질, 소독방법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그런데 76년도 양계강습회는 9월 3일 대구(농협 경북도 지부회의실), 9월 5일 부산(영남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경남, 북 양측가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경상북도 지부 대구 ⑤7991, 경남·부산지부 부산 ②8679>

이 강습회를 후원해준 업체는 유한양행, 한일사료, SF과학사료등이다.

76년도 감별사경진대회 및 자격시험 실시공고

금년도 감별사경진대회 및 감별사자격시험을 다음과같이 실시하니 다수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76. 10. 16
 2. 장소 : 대한양계협회
 3. 응시원서 접수마감 : 76. 9. 15
 4. 응시원서 접수처 : 대한양계협회 22-6917
 5.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1통(사진 3매첨부) 주민등록초본 1통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6. 기 타 : 자세한것은 전화 22-6917 대한양계협회에 문의할것 · 1976. 8. 25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김 재 춘

鑑友會 第10回 月例會 개최

현직 감별사의 친목단체인 감우회(회장 남일우 제10회 모임이 8월 21일 총무 조성철 감별사자택에서 개최되는데,

이날 모임에서는 금년도 감별사 경진대회 준비와 감별사의 해외취업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감우회의 창회취지는 해외취업동향 및 국내감별사의 권익보호를 위함에 있다. 11회 월례회는 다음과 같다.

일시 : 9월 18일 토요일.

장소 : 한미감별학원 9시 집결(청계천 7가, 전화 53-6210)

여주, 신록사에서 개최

참석범위 : 전국감별사 및 감별에 뜻이 있는자.

내용 : 국내, 외 감별에 관한사항 및 10월달의 경진대회 및 자격시험에 관한사항

축산법 시행규칙중 개정령공포

농수산부를 76.8.5일 부로 (76.7.31일 공포하였으나 관보게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76.8.15일부터 시행)

현행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부회장과 종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종란과 종계사 등에 몇가지 미비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본회가 통합 창립되던때부터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 우량한 혈통을 보전 보급하고
2. 형질의 개량과 능력을 향상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고
3. 계통이 불분명한 초생추 생산을 방지하며

4. 양계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여 양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종계등록 규정을 제정하고, 협회 자체사업으로 종계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왔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좀더 강력히 빠른시일내에 본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대폭개정 강화하여, 등록된 종계에서 생산되는 종란 규격 기준에 합격된 종란만을 부화케 하므로써, 일반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등 업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아직도 본법의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소위 능력이 나쁜 씨미 왕병아리등 불량추가 일부 판매되고 있으나 이는 거의가 마뱃씨병 예방주사는 물론 추백리및 다이코프라즈마 검색도 받지 않은 닭에게 생산되고 이를 가르는 양계농가도 대부분 뉴깃슬 계두 등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등 방역의 압적 존재로 업계에 끼친 피해는 막대하였다.

이는 앞으로 축산시험장이나 민간 육종회사에서 수요가의 기호에 맞추어 씨미를 기르는 육계업자를 위하여는 중형육계를, 왕추를 기르는 농가에는 능력이 우수한 유색 검용종을 개발하여 우수한 부화장으로 하여금 보급토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축산법 시행 규칙중 개정된 내용

제26조(종란의 선택)

“난으로서 제26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 확인번호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를 “난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 6 (종계 표시)를 삭제한다.

제26조의 8 및 제26조의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 8 (보고 및 고지) 도지사는 종계를 확인 또는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종란의 표시) 종계업자는 종계가 생산한 종란이 제26조의11(종란의 규격)의 규격

에 의한 규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란의 종류에 따라 종란 수용 용기에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자가 부화장에서 사용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초생추계통 보증서”로 한다. (별표) 부화장 시설기준 제1호 중 “500미터 이상”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초생추 계통 보증서”로 하고 “품종”을 “계통”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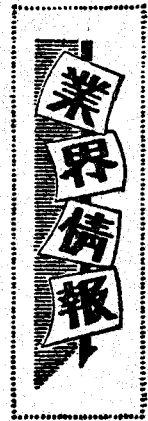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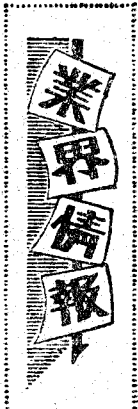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설>

이번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를 보면 종란에 종계 확인번호 표시등 (고무도장 찍는것) 종계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던것을 자가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자가부화장에서 사용할 경우는 표시를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과거 종란에 일일이 표시 하던것을 종란수용용기에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 표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이로써 종계업자의 부담이 적어졌다. 그의 초생추 품종 보증서를 계통보증서로 한것등 비 현실적인점을 현실화하였고, 별표의 부화장 시설 기준중 부화장과 종계장의 거리를 방역을 고려하여 과거 500미터로 규정하던것을 부화장의 입기 및 배기구에 병원 미생물의 여과 시설등이 가능하여저쪽 500미터가 아니라도 질병의 감염을 막을수 있어 동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업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축산업 시행 규칙의 개정은 양계업계의 발전에 따라 많은 부분을 강제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없애고, 종계확인 사업을 본피도에 올려 놓와 소기의 성과를 견우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업계의 이해와 노력에 따라 종계확인 사업의 성과가 달렸다고 보겠다. (노영환)





축산물 생산비 조사 사업실시

한우 · 유우 · 양돈 · 양계

〈축산단체연합회〉

인구증가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수요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축산물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축산진흥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

그래서 축산단체연합회(회장: 金在春)는 농수산부의 후원을 받아 76년도 하반기부터 79년 11월초까지 실시하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대상 호수: 515호

韓牛: 225戶 · 乳牛: 180戶 · 養豚: 40戶

養鷄: 40戶

調査方法

▲ 한우와 유우는 지역별로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지역별 지역원의 지도하에 1년간 기장조사를 실시하고

▲ 양돈과 양계는 서울근교 일원에 걸쳐서 청취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18일 연암축산고등학교(충남 천원군 수향리 소재)에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농교사 등 축산관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최 병인(국립축육장 부장장): 한국축산의 진흥시책

이 용번(서울대 농대 교수): 한국의 양돈과 교육정 창국(서울대 농대): 젖소의 번식 장애와 그 해결 방안)

박 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차장): 한국축산의 당면과제

권 관(연암축산교 교사): 분발호 사료의 실제 이 강습회는 20일 끝났는데 마지막날은 국립종축장 견학도 있었다.

美飼料穀物業界代表

來韓 예정

미국사료곡물업계대표와 농무성해외곡물 담당 책임자로 구성된 아세아순방 곡물사절단 일행이 9월 2일~5일 사이에 내한하여 관련부문 업계 및 정부인사들과 상호정 보교환 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Tokyu Hotel에서 리셉션을 가지며 9월 4일에는 사료·축산현장도 돌아볼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에 오는 人士는 미국사료곡물협회 부회장 Harold D. Smedley, 미농무성 해외곡물 담당책임자 Dale B. Douglas, Illinois 옥수수 생산자협회 회장 Rolland E. Main 및 동협회사무국장 Michael C. Wagner, 미국 수수생산자협회 이사 Larry Abeldt씨 등이다.

제 2회 기업목장경영 세미나 개최

내외축산 · 한국기업목장협회 공동주관

제 2회 기업목장경영세미나가 지난 8월25~26일 2일간에 걸쳐 삼양축산 대관령목장에서 관계인사를 모시고 개최되었다.

개최 첫날인 25일은 관동지방 잔광겸 고령지시험장 견학이 있었고 26일은 한일목장 견학과 삼양축산에서 全仲潤(삼양식품대표)사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구미각국의 축산 동향과 기업목장경영전략 이었다.

그리고 축산회계제도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제 2회 전국축산지도자

세미나 개최

〈연암축산〉

동물약품 원료수급 무난할듯

63만 코타 배정 받아

<동물약품협회>

동물약품원료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동업계는 7월 30일 637,000\$을 더 배정받음으로서 원료수급은 년말까지는 무난해질 것 같다.

그동안 동업계는 원료부족으로 그동안 4/4분기 배정달라까지 앞당겨 쓰는 등 변태지출과 농수산부, 상공부등 관계기관등에 코타증액배정을 진정해 왔다.

신제품 국산대응위 DM 생산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 위해 전기 마련—

<대한신약>

동물메이커로 가축의 방역 및 질병퇴치를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는 대한신약은 국산대응유 DMR을 개발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수산부로부터 대용유 제조허가 제 1호를 득하므로서 우리나라 낙농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그동안 낙농가들은 대용유가 없어 부득이 비싼 우유를 종아지에 급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부 대용유가 수입되기는 했지만 낙농가에 공급할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해 낙농업계에서는 국내 대용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았었는데 이번 대한신약의 DMR 개발로 낙농가는 걱소를 기르는데 하나의 어려움은 해결하게 되었으며 낙농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DMR은 세계적인 대용유 메이커인 미국의 보멘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대용유로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지난 75년 6월부터 실시한 사양시험 결과에 의하면 의 국산 대용유에 비해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었으며 NRC 사양표준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번 동물약품 메이커로 군림하고 있는 대한신약의 DMR 개발로 한국낙농발전의 밝은 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 인사이동 ●

주진만 : 금성물산 입사

조윤환(전대졸) : 중앙약품입사
한국축산 사내이동

김진 : 공장장(판매부장)

정두희 : 본사구대부장

최준환 : 영업부장

경상사료 사내이동

금병열 : 영업부장(영업과장)

최상강 : 영업과장(과장대리)

윤명규 : 생산차장(생산과장)

김영구 : 입사(경북대졸)

● 변경 ●

SF 과학사료 : 전화 신 777-5491 구 28-5537

현대양계 : 전화 신 22-2586~7 구 23-6497

● 입국 ●

원송대(카아길영업부장) : 미국에서 시찰마치고

축! 한국비타민 헤드쿼터쓰 사육 이전

동물약품 전문 메이커인 한국비타민은 사세확장에 따라 본사 사육을 영등포구 가양동에 신설 9월 1일을 기하여 이전할 계획이라 하며 신사육의 준공식은 9월 18일 관계기관 및 업체인사를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하리라 한다. 신축 사육의 장소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본사 및 제 2 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가양동 257-1

전화 : 66) 3215, 2481~4

제 1 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염창동 29-1

전화 63) 0462

시내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북창동 99-33

전화 22) 5286~7

